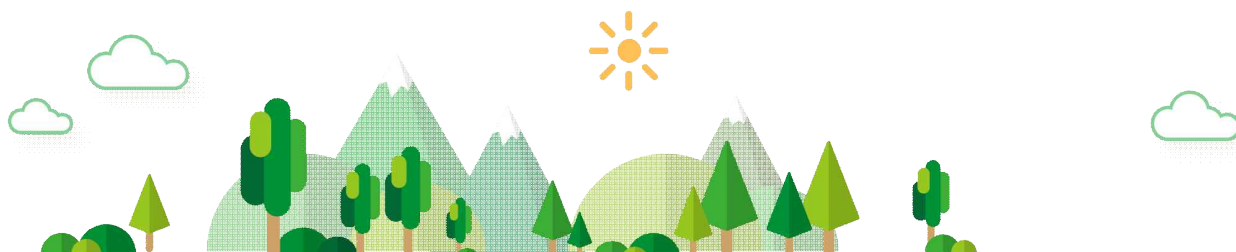


탄소중립

소식지



탄소 정책

- 산업부,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22개 신규과제 공모
- 산업부,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 확정
-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어린이 활동 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 공포
- 산업부, 제5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확정

환경 동향

- 서울 노원구, 건축도 탄소중립 국내 첫 ‘에너지0’ 주택단지 조성
- 기후도시 부산, ‘가덕도, 탄소중립 섬으로’
- 한수원 고리본부, ‘미래탄소중립도시 전시관’ 개소
- 구미시, 정책포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지역전략’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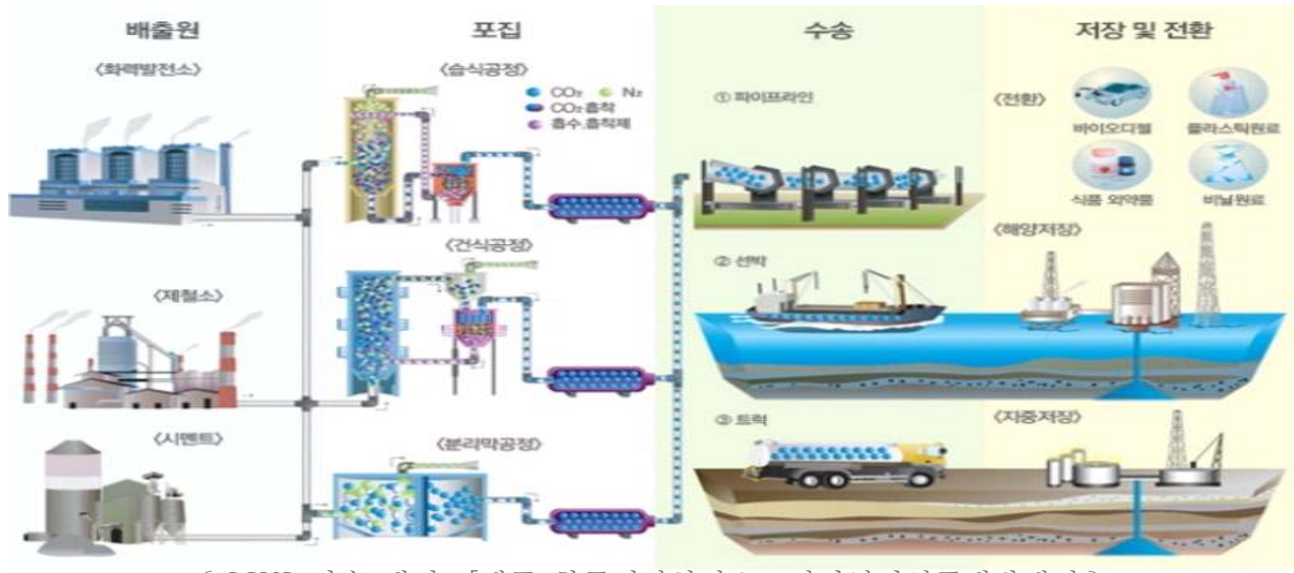
환경 콘텐츠

- 탄소중립 퀴즈
- 이달의 KEYWORD “땅과 흙의 침표” ‘생명이 시작되는 토양’

1 산업부,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과기정통부·통계청과 CCUS 특수분류체계 공동개발

- 탄소중립 달성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관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
- 산업계에서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CCUS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CCUS추진단과 한국화학연구원이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해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
- (분류체계)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포집·수송·저장·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 구조로 구성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향후 정부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에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됐다“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향후 정부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에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



[CCUS 기술 개념도[제공=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자료: 산업부)

■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등 2025년 환경연구개발 신규과제 390억 원 지원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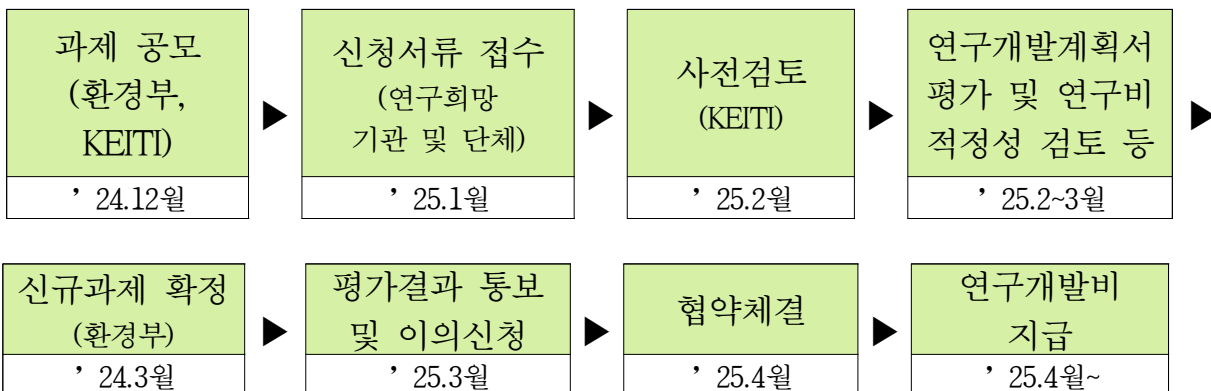
- (사업개요) 국제사회(글로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4개 과제에 118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지원
-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을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 기술개발’ 등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로 본격적인 세계최고 수준(글로벌 탑)의 녹색기술 확보
-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모니터링) 기술개발’ 과 ‘생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 8개 과제에 지원하여 국민 생활과 접한 녹색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 (공모과제)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 포함된 11개 사업 총 22개 과제

※ 2025년도 환경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 3,489억원(전년 대비 15.8% 증가)

- (추진일정)



붙임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개요

□ 사업 및 과제 개요

- 연구개발과제 및 지원규모 : 총 11개 사업, 22개 신규과제 추진(약 390억원)

사업명	과제 기간	신규 과제수	'25년도 정부지원금	비고
합계 (11개 사업)	-	22	390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통합관리 기술개발	'25~'28	1	78.4	신규사업
신기후체제대응환경기술개발	'25~'28	1	15	
대기환경무인기 One-stop 플랫폼 기술개발	'25~'29	1	40	신규사업
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25~'28	1	35	신규사업
디지털 담수화 플랜트 농축수 자원화 기술개발	'25~'29	1	37	신규사업
수열에너지 활용기술 및 에너지믹스 기술개발	'25~'29	2	25	신규사업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	'25~'27	4	18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	'25~'28	3	27.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25~'27	4	36.2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25~'28	2	50	신규사업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	'25~'28	2	28	신규사업

- 추진체계 : 총괄기관(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자료: 환경부)

산림파괴 탄소배출 가속하는 바이오매스 개선방안

- (사업목표)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 수단 2023년 기준 2.7GW의 발전 설비가 가동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

* 2023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이 74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50배 증가하며, 수입 의존도가 98%에 달하는 목재펠릿 시장(연간 수입금액 7,000억 원)과 같은 문제를 초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정산비용 증가, 원료경합, 산림훼손 및 탄소배출 우려

-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의 가격과 공급 문제, 산림훼손과 탄소배출에 대한 비판 등 원료경합 및 환경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27차례의 면담 및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

폐목재 활용 우선 원칙,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부가가치 극대화, 바이오매스 발전 정책 지원 축소 등 주요 개선방안

- (개선방안) ‘폐목재 재활용 우선 원칙’을 세워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폐목재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우선 원칙에 따라 처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 산림자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한다. 특히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원목과 미이용재 간 구분을 명확히해 자원의 경합을 해소
- 바이오매스 발전 정책 지원을 축소한다.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미부여하고 기존 설비에 대해서도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매스 연료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및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 (개정배경)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초등학교 체육관 및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필요, 환경보건법 개정*('24.3.19.)에 따라 하위법령에 환경책임보험 검토·심의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구제정책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업무를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

- (개정내용)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어린이활동공간에 추가 /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규정 마련(안 제7조의3)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검토·심의를 위해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신설

■ 어린이활동 공간 범위 확대

-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 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

■ 환경책임보험 개요

-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

*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

- (도입배경) 대형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의 필요성 대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정('14.12) 시,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위해 의무보험으로 환경책임보험 도입

-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료: 환경부)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및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2025.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확대



초등학교의 체육관(2032.9.1.~)과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2029.9.1.~)을 어린이활동공간*에 추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 중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한 것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규정 마련



-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검토·심의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2025.1.1.)
-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확정

-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분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R&D 생태계 조성을 4대 전략과 14대 과제 확정

- 미래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에너지 R&D 생태계 조성. 도전혁 신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개선으로 시장 병목현상을 해소함과 동시에 R&D 성과 확산을 지원

* 산업부는 안전시험 검증센터를 통해 실증·사업화 단계의 안전성을 제고, 아울러 최정상급 융합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에너지산업 인재 육성도 놓치지 않고 진행한다

4대 전략·14대 과제 확정

비전·목표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

**국내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경제적 파급효과 59조원 달성

**무탄소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자립화 실현**

기술자립화율 상향 10%p ↑

**에너지R&D
사업화 성과 제고**

기술사업화율 제고 10%p ↑

4대 전략·14대 과제

1.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 ① 원전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 혁신
- ② 재생에너지의 질서있는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 ③ 대규모 청정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주기 혁신
- ④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무탄소화 촉진

2.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

- ① 송전제약 완화를 위한 기술 개발
- ② 계통 강건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 ③ 분산자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통한 배전망 유연화
- ④ 계통유연성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3. 에너지사용의 고효율·청정화

- ① 초고효율화 및 보급연계 강화
- ② 에너지 수요관리 최적화 기술 개발
- ③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활용 최적화
- ④ 非배터리 수송분야 연료전환

4. R&D 혁신생태계 조성

- ① 에너지 R&D 성과확산을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
- ② K-ET(Energy Technology)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기반구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 노원구, 건축도 탄소중립

국내 첫 ‘에너지0’ 주택단지 조성

■ ‘노원 이지(EZ)하우스’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단지 조성

- 유희 학교부지 활용해 121가구 건설, 옥상·외벽 태양광패널 설치 전기 생산, 아파트 3개동 지하엔 지열시스템 구축. 에너지 사용 60%·탄소배출 40% 감축, 연간 270t 빗물 저장 청소·조경수 활용

- 건물 외벽에는 외단열 방식을 채택. 콘크리트 외벽의 외부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외단열 방식은 단열 성능이 월등히 높다. 내부 콘크리트 벽체의 온도가 높아져 결로 발생이 줄어들고, 태양열에 의한 구조체 손상도 방지

* 발코니는 특수한 열교 차단 구조물을 통해 건물 외벽과 분리돼 열 손실을 최소화. 단열 성능을 높이고, 외부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창호는 미닫이 대신 여닫이로 하고, 로이코팅을 하고 아르곤 가스를 채운 3중 유리를 적용, 건물 외벽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여름철 강한 태양열 유입을 막고, 복사열을 막아 도심 열섬 현상 완화에도 기여

■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자급자족 실현

- 전단지 내 아파트 옥상과 외벽에는 총 1284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데 연간 약 40만7000kWh의 전기를 생산해 공급.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대 에너지 소비를 자체 충당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을 실현

* 패시브 하우스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건축비는 기존 대비 17%가량 더 늘었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대비 60% 이상 줄였고, 탄소 배출량은 40% 이상 감축. 또, 연간 270t의 빗물을 지하에 모아 청소·조경용수로 사용해 물 사용량도 최소화

- 지열을 이용해 가구별 열교환장치를 통해 급탕과 냉난방을 공급. 중앙형 열회수 환기장치 적용해 가구 내 나쁜 공기가 모이는 주방과 화장실에 흡기장치 설치, 거실과 방 등 거주 공간에 급기장치로 신선한 공기가 공급

(자료: 경상남도청)

기후도시 부산, '가덕도, 탄소중립 섬으로'

■ 'RE100', 무탄소 에너지 100%인 CF100 등 국제사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 부산의 전력 자립률은 174%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상위로 분류되지만,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이 97% 이상을 차지하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은 3%에 불과, 강서구 미음·국제물류산업단지 내 700개 기업 지붕 등 유휴공간에 총 380MW 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 2027년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면 부산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2.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22만t을 감축

*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 시스템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친환경 미래 첨단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과 친환경 기술개발, 녹색금융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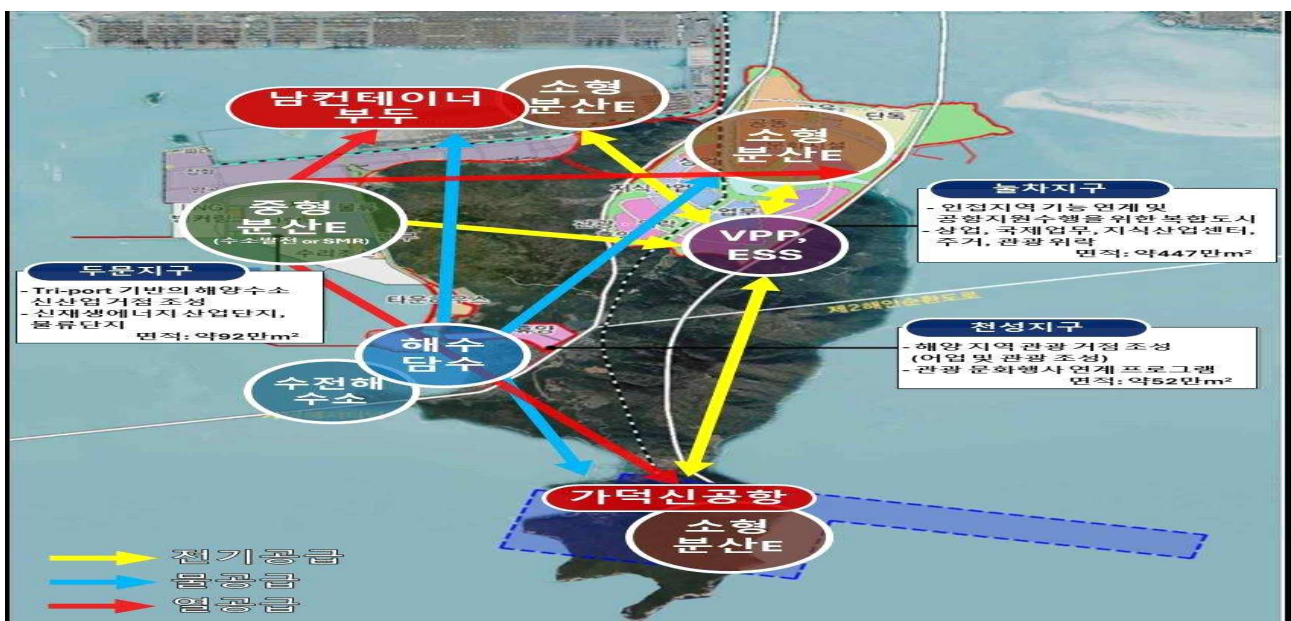
분산에너지 [부산연구원 제공]

■ 아래 탄소 저감기술(기후테크) 육성,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추진 등 5대 전략과 15개 과제

- 2029년 말 가덕도신공항이 개항. 신공항에 인접한 놀차·두문·천성 지구에는 989만㎡ 규모로 공항 지원시설, 국제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해양 관광거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항복합도시 건립이 추진
- 에코델타시티에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블록체인·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등 혁신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실증사업으로 블록체인 활용 항만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형 모델 구축, 전력중개거래 가상발전소(VPP) 육성 등을 추진

* 기후산업 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 저성장 제조업의 기후테크 업종 전환, 정책금융, 창업 등을 지원한다.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기후테크 기업의 금융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

-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중요.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은 쾌적한 환경을 갖춘 그린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과 기후테크산업을 연계해야 글로벌 녹색성장 중심지로 성장



가덕도 트라이포트 탄소중립 도시 개념도 [부산연구원 제공]

[자료: 부산광역시청]

한수원 고리본부, ‘미래탄소중립도시 전시관’ 개소

- 미래탄소중립도시(SSNC, i-SMR Smart Net-zero City)전시관을 개소
 - 전시관은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최신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
 - ‘에코가 green(그린) 세상’ 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전시관은 혁신형 소형원자로(i-SMR, 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를 통해 구현하는 첨단 미래에너지 도시를 주제로, 전시관은 4개의 로봇팔, 플라잉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미래에너지 도시를 생동감 있게 재현, 탄소중립, i-SMR, 스마트넷제로 시티(Smart Net-zero City) 등 다소 어려운 개념을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 전시관 구축은 원자력 기술이 단순히 전력 공급의 역할을 넘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 교육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미래탄소중립도시 전시관 조감도.(과기정통부 제공)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구미시, 정책포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지역전략’ 포럼

■ ‘글로벌 환경규제 파고 넘자’ 지역 중소기업 위한 정책 발굴

-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은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전략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분석 ▲온실가스 저감 정부 지원사업 등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경북 소재(포항·경산·구미·상주·의성) 탄소중립지원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LG, SK 등 대기업들은 환경 대응 조직과 법무팀을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지역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 글로벌 환경규제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별 무역장벽으로 작용. 각국이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 무역질서에도 큰 변화.

-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비해 지역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 정책포럼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에 이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

(자료: 구미시청)



탄소중립 퀴즈

OX 퀴즈

- ①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휴대하기 간편하고, 액체 등을 넣어 사용하며, 재활용을 위해 쓰고 난 뒤 분리배출할 때에는 뚜껑을 빼고, 납작하게 눌러서 내놓습니다. 담배꽂이를 넣은 것, 테이프를 붙인 것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이다. (O/X)
- ② 탄소발자국은 어떤 주체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이나 또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내는지를 양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구온난화와 연계하여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O/X)

탄소중립 용어

- ① _____(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고효율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하며,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일 경우 1등급 부여하는 것이다.
- ② _____(이)란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을 통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 이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 △ 산림의 용도 전용(deforestation) 방지 활동, △ 과도한 벌채에 따른 산림의 회복력 저하(forest degradation) 방지 활동, △ 산림보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 축적 증진 등 산림경영 활동(conservation)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퀴즈 정답

O, O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활동(REDD)



이달의 KEYWORD “땅과 흙의 심포”

■ 생명이 시작되는 토양



생명이 시작되는 토양, 모두의 지구

세계 토양의 날

토양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날

토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함께 실천해요!

1.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어요.
2.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요.
3. 오염된 토양 발견시 지자체에 신고해요.
4. 중성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요.

■ 12월 환경관련 Day

○ 12월 4일 야생동물 보호의 날 (Wildlife Conservation Day)

국제 치타의 날 (International Cheetah Day)

○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 (World Soil Day, UN지정)

○ 12월 11일 국제 산의 날 (International Mountain Day, UN지정)

(자료: 기후변화교육센터)